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세안의 역할*

김석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논문요약

일본은 미국, 인도, 호주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역시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권인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일본 대 중국이 헤게모니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아세안은 특유의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통해 미일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전략(balancing strategy)과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통해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미일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라는 새로운 지역 질서 확립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서 일본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FOIPS)의 이름으로 추구해온 세 가지 측면의 안정적이고 다각적인 세력균형의 창출, 지역적인 회복력(regional resiliency)과 발전의 연결성 증진 그리고 규칙 제정과 규범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일본과 아세안과의 협력이 지역의 신 냉전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질서 구축 전략으로 이 지역의 협력, 번영, 그리고 평화적인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달성한다는 전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주제어: 일본, 미국, 중국, 인도·태평양, 일대일로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 되었다. 유익한 논평과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I. 서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6년 8월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 개발회의 도쿄 국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FOIP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했다.¹⁾ 그 이후 많은 연구자, 언론인과 정책결정자들이 일본의 FOIPS과 그 개념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어떤 안보 전문가들에게 일본의 FOIPS는 본질적으로 중국을 지역 질서와 변영 그리고 서방 진영의 이익에 대한 적대적이고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배타적 개념이다.²⁾ 그러한 견해는 아베의 FOIPS를 주로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미국 사이의 4개국 안보협력(Quad: Quad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으로 대표되는 지역 민주국가들의 해양 연합을 만들어 중국 세력과 영향력에 대처하기 위한 지정학 전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본의 FOIPS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구상의 대안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대안 전략 내지 지리경제적 전략(geoeconomic strategy)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³⁾

그러나 또 다른 안보 전문가들에게는 일본의 FOIPS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정치경제체제에 중국과 다른 강대국들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⁴⁾ 일본이 강조하는 그러한 견해는 FOIPS의 지정학적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개발과 지역 연결

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Address by Prime Minister Shinzo Abe at the Opening Session of the Sixth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 VI).” 27 August, 2016. https://www.mofa.go.jp/af/af2/page4e_000496.htm(검색일: 2019.5.15).

2) Swaine, D. Michael, “Creating an Unstable Asia: The U.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Carnegie Endowment for Peace, 2 March 2018.

3) Maslow, Sebastian, “Japan’s ‘Pivot to Asia’: Tokyo Discovers the Indo-Pacific.” *APPS Policy Forum*, 1 August, 2018; David, A Brewster,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What It Means for Australia.” *The Interpreter*, 7 March 2018.

4) Sen Ashish, Kuma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e Atlantic Council*, 31 July 2018.

성 지원과 같은 경제와 개발 협력인 일본의 지역 정책을 위한 포괄적인 비전(Vision)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⁵⁾

이런 종류의 견해는 특히 일본의 FOIPS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사이의 제3자 협력(third party cooperation)에서 특히 많은 중첩이나 상호 보완성을 지니므로써, 경쟁적 측면뿐만 아니라 협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⁶⁾ 이 논점에 따르면 일본의 FOIPS를 단순히 ‘반중전략(counter-China strategy)’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개념이 세계 경제의 중력 중심이 서유럽에서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장기간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근시안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⁷⁾

이와 같이 일본의 FOIPS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어떤 관점이 일본의 FOIPS의 실재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논문은 FOIPS가 왜 일본에게 중요한 전략적 개념이 되었는가를 규명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FOIPS가 중국 부상에 따른 일본의 지정학적 우려에 의해 추진된 것은 확실하지만 FOIPS의 실재 또는 구현이 단순한 지정학 또는 지경학 전략보다는 지역질서 구축 전략(regional order-building strategy)이 공통의 규칙과 규범 하에 다양한 지역 국가들을 통합하는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고찰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이러한 지역 질서 확립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서 일본이 FOIPS 이름으로 추구해 왔던 세 가지 측면인 안정적인 세력균형의 창출, 지역적 회복력(regional resiliency)과 발전의 연결성 촉진 그리고 규칙 제정과 규범 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이 논문은 이러한 쟁점

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Priority Polic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FY,” April 2017 <https://www.mofa.go.jp/files/000259285.pdf>(검색일: 2019.5.15.).

6) Michishita, Narushige, “Cooperate and Compete: Abe’s New Approach to China.” *The Straits Times*, 13 November, 2018.

7) Akihiko, Tanaka, “The scope of free and Indo-Pacific strategy.” *Diplomacy*, 47, January/February 2018, p. 37.

을 논의한 이후 일본의 FOIPS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역할을 규명하면서 일본과 아세안과의 협력이 지역 신 냉전 출현을 피하기 위한 지역질서 구축전략으로서 이 지역의 협력, 번영 그리고 평화적인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II. 선행 연구와 분석의 틀

2017년 11월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주장한 인도-태평양 구상을 발표한 이후 한국 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면 대부분이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미국과 인도-태평양 구상을 분석하고 있다. 그 예로는 최은미(2019), “일본은 여전히 '반응형 국가'인가?”, 윤석준(2019), “미국 자유·공개 인도-태평양 (FOIP) 전략과 한국 신남방정책”, 박찬욱(2019), “남방전략으로 대중국 의존 리스크 완화 필요 일본 경제·안보협력 결합한 지역강자가 목표”, 이정훈(2018),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 분석”, 김재관(2018),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윤도원(2018), “대외안보전략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여”, 신성호(2018),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임경한(2018),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도와 호주의 대응”, 정구연(2018),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의 전망 등이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주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중국 봉쇄정책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이러한 일본과 양자 관계를 권력, 안보, 또는 경제 이익과 같은 유형적이고 물질적 논리로부터 일본의 아세안 관계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일본과 아세안 지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제공,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동 해양 작전 등과 정

책의 구체화가 자연스럽게 분석하고 있다.⁸⁾ 그러나 일본과 아세안 관계를 물질주의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가의 외부 관계와 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성주의자들(constructivists)은 물질주의 접근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관계 분석에 규범, 가치, 사상, 문화 그리고 정체성과 같은 무형 자산을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⁹⁾.

그래서 본 연구는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독자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인도양과 태평양의 관문이면서 지정학과 지리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아세안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이 구상이 중국의 봉쇄정책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이 지역 국가들이 안정과 번영을 추구한 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라는 용어는 2010년경부터 일본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¹⁰⁾ 이것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특히 동아시아 해양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가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 동중국해(East China Sea), 남중국해(South China Sea) 그리고 인도양(Indian Ocean)에서 세력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은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현상유지를 점차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회색지대전술(grey-zone tactics)’를 우려하고 있

8) 김석수, “아베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전개과정.” 『세계지역연구논총』 2019년 제37집 2권, pp. 208-209.

9) Kratochwil, F, “Constructing a new orthodoxy? Wendt’s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constructivist challenge,”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9, NO. 1, 2000, pp. 73-101; A. Wendt,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 1995, pp. 71-81.

10) Mataka Kamiya, “Japan and “Indo-Pacific: Expectation and problems in Jap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JIIA).” *Security order in Asia*, JIIA, 2013, p. 29.

다.¹¹⁾ 회색지대갈등(gray-zone conflict)이라는 용어는 지난 2010년 미국의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에 등장함으로써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회색지대란 국가 간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갈등을 의미하며,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았으나 현상 변경을 위한 군사적 강압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¹²⁾ 결국 회색지대 갈등은 상대국의 무력 대응을 이끌어 내거나 혹은 전면전 개진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도발을 의미한다.¹³⁾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남인도양까지 군사와 상업 시설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진주목걸이전략(String of Pearls strategy)’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이 전략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통과하는 해양교통로(SLOCs: Sea Lanes of Communications)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⁴⁾

일본의 그러한 우려는 아베가 2012년 12월 총리가 되었을 때 발표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개적으로 표현됐다<그림>.¹⁵⁾ ‘두 대양의 융화(Confluence of the Two Seas)’라는 제목으로 인도 의회에서 했던 이전 아베 연설을 언급하면서 아베 글은 태평양에서 평화, 안정 그리고 항해 자유는 인도양의 평화, 안정 그리고 항해 자유와 분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강조했다.

더 나아가 아베는 동중국해에서 기정사실화전략(fait accompli strategy)과 남중국해를 중국의 호수(Lake Beijing)로 만들기 위한 남중국해 군사화를 포함해서 중국의 해양 영향력의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아베의 주장은 증대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미국, 호주 그리고 인도는 인

11) Brad, Roberts, *The Case for US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6, pp. 1-350;

12) 정구연,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 전략의 변화: 회색지대갈등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 제24권 3호, 2018, pp. 93-94.

13) Hoffman, Frank G, *The Contemporary Spectrum of Conflict: Protracted, Gray zone, Ambiguous and Hybrid Modes of War*.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2015, pp. 1-400.

14) Kamiya, Mataka, *Japan’s Asia strategy and Indo-Pacific: Japan’s diplomacy at an era of Indo-Pacific: responses to swing states*. Tokyo: JIIA, 2015, p.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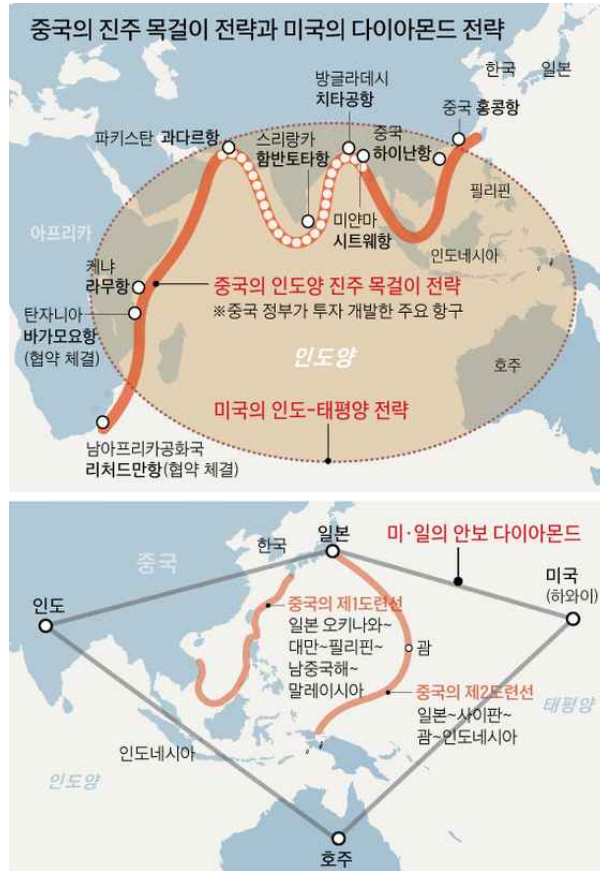
15) 박성진, “인도-태평양 구상 발원지는 일본, 전개 방향 주시 필요.” 『경향신문』 2018년 6월 9일.

도양에서 서태평양까지 뻗어있는 해양 공유지인 공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안보 다이아몬드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¹⁶⁾

아베 정권은 미일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면서 특히 호주, 인도와 같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일본의 전략적 존재와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2014년 아베 정권은 호주와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special strategic partnership)’과 인도와 ‘특별 전략적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special strategic and global partnership)’을 통해서 양국과 관계를 격상시켰다. 아베 정권은 또한 2009년 이후 장관급 수준에서 개최되지 않은 3국 전략적 대화(TSD: Trilateral Strategic Dialogue)를 활성화시키면서 2015년부터는 일본-호주-인도 고위급 회의를 시작했다.

16) Abe, Shinzo,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27 December, 2018.

〈그림〉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과 안보 다이아몬드 전략



출처: “중국 진주목걸이나 미국 다이아몬드나 … 한국의 선택은.” 『중앙일보』 2017년 12월 22일.

더 나아가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상은 2008년 4개국 대화(Quad)로부터 호주가 탈퇴한 이후 중단된 미국, 호주 그리고 인도와 4개국 전략적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노의 발표 이후 2017년 11월, 2018년 6월에 4개국 고위급 관리들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항공기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항구 방문

과 공동훈련 참가를 증대시켜 남중국해와 인도양 같이 일부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일본의 존재와 파트너십을 강화했다.¹⁷⁾

FOIPS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보다 많은 군사 교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로 이용해 왔다. 특히 FOIPS의 핵심 요소는 일본이 인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인도가 중국과 균형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한 전략 배후에는 중국의 세력과 영향력을 상쇄하는 데 있어 인도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평가해 왔던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일본 국가안보국(NSC: National Security Secretariat)의 사무차장과 같은 일본 정책 입안자들에 의한 지정학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¹⁸⁾ 인도를 동쪽으로 끌어 들이면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부터 인도양으로 자신의 재원과 관심 일부를 돌리게 만들 수 있다.¹⁹⁾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FOIPS는 중국의 부상 때문에 지역에서 지리전략적(geostrategic)변화에 대응으로 발전한 본질적으로 지정학과 지경학적 개념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의 FOIPS가 반드시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일본은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²⁰⁾ 2018년 10월 아베 총리는 일본 수상으로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양국의 고위급 교류, 경제 협력, 해양 안보 그리고 지역과 국제 문제를 촉진하는 것에 동의했다.

더 나아가 아베와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해양 수색과 구조, 일본-중국의 혁신과 협력대화(Japan-China Innovation and Cooperation Dialogue)와 일본-중국의 산업장관 대화(Japan-China Industry Ministers' Dialogue)의 설립을

17) Satake, Tomohiko, "Chapter 8. Japan: Expanding Strategic Horizon." *East Asian Strategic Review*.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2017, pp. 237-263.

18) Suzuki, Yoshikatsu, *Japan's strategic diplomacy*. Tokyo: Chikuma Syobo, 2017, p. 300-310.

19) Chanlett-Avery, Emma, "Japan, the Indo-Pacific, and the 'Quad.'"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14, 2018.

20) Satake, Tomohiko, "How to Normalise Sino-Japanese Defence Relations." *East Asia Forum*, 24 August, 2015.

포함해서 12개의 국제협약과 양해각서에 서명했다.²¹⁾ 일본과 중국이 그러한 원칙에 대한 약간의 이해 차이가 있었지만 아베 수상과 시진핑 주석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이행, 서로 위협하지 않는 파트너로서 협력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의 발전이라는 3개의 원칙에 동의했다.²²⁾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경제, 산업 그리고 정치와 군사 문제까지도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은 일본과 중국의 세력격차(power-gap)가 확대됨에 따라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만약 중국이 지속적으로 유리하게 현존 질서를 재구축한다면 일본과 중국,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은 필연적으로 불가피할 것이다.

일본은 중국과 현재의 건설적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속적 포용 정책 근간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세력균형(power balance)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역에서 미군의 주둔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호주와 인도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려는 한 가지 맥락이다. 일본에게 있어서 FOIPS는 중국과 일본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대중 포용정책을 중단시키기 보다는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호주와 인도처럼 일본 역시 FOIPS가 어떤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²³⁾ 이것은 중국이 법치주의, 항해의 자유, 개방성 그리고 자유 무역과 같은 기본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는 한 FOIPS에 가입하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FOIPS를 단순히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 전략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FOIPS의 근본적인 강조점은 중국을 비롯한 서로 다른 국가들이 공통된 규칙과 원칙하에 공존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이고 다원적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2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Prime Minister Abe Visits China." 26 October 2018.

22) Kobara, Junnosuke, "Japan and China See Abe's 3 Principles, Slightly Differently." *Nikkei Asian Review*, 30 October, 2018.

2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owar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September, 2018, p. 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FOIPS는 단순한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 전략이라기보다는 지역 질서 구축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순전히 배타적이며 경쟁적인 단순한 지정학 또는 지경학적 전략과 달리 지역 질서 구축전략으로서 FOIPS는 경쟁적/배타적이고 협력적/포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FOIPS는 중국의 일대일로구상을 직접 목표로 하기 보다는 지역질서 그 자체를 구축하거나 강화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FOIPS는 무엇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이 FOIPS의 이름으로 실행한 실제적인 정책은 지역 질서 구축 전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Ⅲ. FOIPS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일본의 지역 질서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FOIPS에 최소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이 요소들은 첫째, 안정적·다자적인 세력균형을 확립하는 것 둘째, 지역의 복원력, 발전 그리고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 셋째, 규칙 제정과 규범 설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안정적·다자적인 세력균형 확립

안정적인 세력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FOIPS의 최우선 과제이며, 미일동맹은 이것의 초석이다. 실제로 FOIPS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미일동맹의 범위를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지역 안보 공약을 유지하는 것이다.²⁴⁾ 따라서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FOIPS 채택을 발표한 것은 일본의 명백한 외교적 승리였다.²⁵⁾ 실제로 지난 수년 동안 일본은 역량 강화(capacity-building), 군사 작전/훈련 그리고 인프라 투자와 같은 분야를 보다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24) "Expanding the U.S.-Japan alliance to Indo-Pacific." *Sankei Shinbun*, 12 November, 2017.

25)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APEC CEO Summit." 10 November, 2017.

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²⁶⁾

동시에 일본은 지역 및 역외 국가들과 전략적 제휴를 다각화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위원 중의 한 사람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논의되지 않았던 현실 중의 하나는 이 전략은 미국 혼자 이 지역에서 미래 많은 국가들의 구상을 달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것이 일본이 인도와 호주뿐만 아니라 아세안,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과 역외 세력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유동국가들(Swing States)의 대부분은 최근 경쟁이 치열한 전략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²⁷⁾ 일본은 지역 강대국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더 많은 역외 우방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을 인도-태평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다자적인 세력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 때 다른 약소국들은 다자 간 세력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생존 전략에 필수적이다. 소위 세력전이이론(power-transition theory)이 주장하고 있듯이 갈등은 부상하는 세력과 현존하는 헤게모니 국가 사이의 세력격차가 좁혀질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²⁸⁾ 국제적 긴장은 현존하는 헤게모니 국가가 부상하는 세력을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대체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현상은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으로 설명할 수 있다.²⁹⁾ 사실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에 대

26) Satake, Tomohiko, “The US-Japan Alliance Amid Uncertainty,” *East Asian Strategic Review*.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2018, pp. 233-236.

27)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동국가(Swing States)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국가지 한국, 인도, 호주, 아세안 등이 존재하고 있다.

28) Grace, Abigail, “Beyond Def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e Diplomat*, 6 September, 2018.

29) Tammen, Ronald 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CQ Press, 2000, pp. 1-350.

한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미국의 대중정책은 그러한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화 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미중이 헤게모니 전쟁을 피하고 투키디데스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상하는 세력과 쇠퇴하는 헤게모니 국가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지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한 다양한 세력균형을 확립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광범위한 전략적 공간을 발견하고 창출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보다는 다자간의 세력균형을 추구하고 그러한 세계에서 평화 공존(peaceful co-existence)을 주창해 왔던 중국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³⁰⁾

중국이 인도-태평양 개념을 지지하지 않고 그리고 관련 언론과 학자들은 이 개념을 비판해 왔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 중의 하나이다.³¹⁾ 중국은 미국과 위험한 경쟁이나 갈등을 피하는 것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과 다른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도 역시 가장 안정적이고 다자적인 인도-태평양 질서의 출현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2. 지역의 회복력, 발전 그리고 연결성 촉진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테러리즘, 자연 재해, 불법 어업, 초국적 범죄, 사이버 위협, 부패, 경기 침체 그리고 국내 정치 불안 등 다양한 위협 및 위협에 여전히 취약하다. 이러한 취약성은 지역 국가의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훼손함으로써 지역의 불안이나 갈등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국가의 취약성을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자율적인 발

30) Alison, Graham,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7, p. 45.

31) Jiechi, Yang, "Working Together to Build a World of Lasting Peace and Universal Security and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Mankind," *address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Seventh World Peace Forum*, Tsinghua University, 14 July, 2018.

전을 장려하는 것은 지역질서 구축전략으로 FOIPS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본이 최근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역량 구축 노력을 강화한 이유이다. 일본의 역량 구축 노력은 해양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지원 및 재난구호(HA/D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테러리즘 대책, 평화 유지 활동, 사이버 또는 우주 안보와 같은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남태평양, 인도양,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등으로 역량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³²⁾ 이러한 일본의 역량 구축 활동은 특히 미국과 호주 등 성향이 같은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³³⁾

지역 국가들과 일본의 방위 장비와 기술 협력은 역내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중요하다. 일본은 2014년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새로운 3원칙(new Three Principles on Transfer of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도입 이후 2015년 새로운 개발협력헌장(new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발표를 통해서 호주, 인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의 국가들과 방위 장비와 기술 협력을 더욱 촉진했다. 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은 일부 다른 국가들의 무기 수출과는 달리 주로 상업적인 이익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은 평화 공헌과 국제협력의 적극적 촉진과 일본 안보에 기여할 때 허용된다.³⁴⁾ 따라서 능력 구축 지원은 일본의 방위 장비 및 기술 협력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포함한 경제 원조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역 질서 구축 전략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32) Medcalf Rory, "China and the Indo-Pacific: Multipolarity, Solidarity and Strategic Patience." *paper delivered for Grands enjeux strategiques contemporains*, Chaire en Sorbonne Universite Paris 1 Pantheon-Sorbonne, 12 March, 2018.

33)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http://www.mod.go.jp/e/d_act/exc/cap_b/ (검색일: 2019.5.30.).

34) "MOD's capacity-building assistance in Timor-Leste." http://www.mod.go.jp/e/d_act/exc/cap_b/timor_lesle/index.htm (검색일: 2019.6.1.).

도구이다. 2016년 일본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FOIPS에서 구체화된 국가들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의 70% 이상을 할당했다.³⁵⁾ 일본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인도, 메콩 강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를 급속히 증가시켰다³⁶⁾.

아세안 연결성에 관한 전체 기본 계획(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일본-메콩강 연결성 구상(Japan-Mekong Connectivity Initiative) 및 아시아 및 아프리카 성장 회랑(Asia and Africa Growth Corridor)과 같은 지역 연결성 구상 축진은 경제, 정치 그리고 안보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이 지역 국가들은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없다면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ODA와 하드(hard)와 소프트(soft)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일본의 경제 및 개발 협력은 지역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지역 질서 구축 전략으로서 FOIPS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연결성 지원은 종종 중국의 일대일로구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2013년 중국의 일대일로구상이 발표되기 훨씬 전부터 지역 연결성을 지원해 왔다.³⁷⁾ 또한 2018년 5월 일본과 중국이 ‘제3세계에서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n Business Cooperation in Third Countries)’를 체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제3세계에서 자신들의 경제 활동에 관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분명한 상호 보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FOIPS를 중국의 일대일로구상에 대한 대응전략의 맥락으로 인식하는 것을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35)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Agency,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Cooperation.” http://www.mod.go.jp/atla/en/policy/defense_equipment.html(검색일, 2019.6.2.).

36) “Japan Shifts its Focus on Indo-Pacific.” *Nikkei Asian Review*, 15 August 2018.

37) Corey Wallace, “Leaving (North-east) Asia?” *Japan’s Southern Strategy, International Affairs*, Vol. 94, No. 4, 2018, pp. 893-904.

3. 규칙 제정과 규범 설정

일본은 이 지역의 규칙 제정 및 규범 설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FOIPS의 중요한 목적이지는 하지만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은 FOIPS에 따라 그러한 가치를 촉진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이것은 2007년 아베의 첫 번째 정권 때 아소 다로(麻生太郎) 외상이 발표한 FOIPS를 ‘자유와 번영의 호(AFP: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개념과 비교했을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자유와 번영의 호(AFP)가 반드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는 아니지만, 중국의 가치 지향적인 접근(value-oriented)은 일본이 다른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가들을 배제하는 지역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많은 우려와 훨씬 더 많은 회의론을 불러 일으켰다. FOIPS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 자체보다는 모든 지역 국가들이 규칙, 규범 및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규칙 제정과 규범 설정 노력을 강화했다. 일본의 무역에 대한 최근의 노력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위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합의와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과 경제적 파트너십 합의(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FOIPS의 실현을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 기반 시장을 수립하기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³⁸⁾ 중국은 RCEP의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 협정에서 중국과 지역 규칙 제정에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본의 시금석(touchstone)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중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장기간 협상 끝에 해양항공 통신메커니즘(MACM: Maritime and Air Communication Mechanism)을 출

3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14th ASEAN-Japan Summit (Overview).” 18 November, 2011. <https://www.mofa.go.jp/announce/jfpu /2011/11/ 1118-02.html>(검색일: 2019.6.5.).

범시킴으로 합의한 것이 중요하다. MACM은 2018년 6월에 가동을 시작했다. MACM은 주로 위기관리 조치이지만, 일본과 중국은 선박과 항공기 사이에 직접 교신을 위해 해양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 기준(CUES: Code of Unplanned Encounters for Sea)을 기반으로 특정 주파수, 신호 및 약어를 직접 사용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CUES가 2014년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서 채택된 이후 다른 서방 국가들과 함께 일본은 중국에게 해군 활동에 CUES 채택을 독려했다. 그러므로 MACM을 시작하는 것은 중국이 규칙과 제도의 망(mesh) 속에 포함되도록 장려하기 위한 일본 노력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질서구축 전략으로서 FOIPS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다.

VI. FOIPS의 핵심 세력으로서 아세안

브루나이와 캄보디아와 같은 일부 국가는 일본의 FOIPS를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아세안 자체는 FOIPS와 쿼드(Quad)가 아세안의 역할과 중심성을 주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FOIPS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FOIPS를 추진하면 아시아를 두 개의 다른 블록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진영과 중국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false choices)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³⁹⁾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협력 개념을 발표했지만 그 개념은 아세안 중심성 유지, 내정 불간섭, 합의적 의사결정이라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강조함으로써 일본 또는 미국 주도의 FOIPS와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⁴⁰⁾

아세안의 우려는 FOIPS를 단순히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 전

3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Summit," 14 November, 2018. https://www.mofa.go.jp/ecm/ep/page25e_000267.html(검색일: 2019.6.5.).

40) Charissa, Yong, "Singapore Will Not Join Indo-Pacific Bloc for Now: Vivian," *The Straits Times*, 15 May, 2018.

략으로 인식한다면 완전히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하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상호 배타적인 세력권(spheres of influence)을 형성하는 고도로 경쟁적인 환경 또는 신 냉전 속에서 아세안 역할은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 질서 구축 전략의 맥락에서 FOIPS를 인식한다면 아세안은 FOIPS에서 결코 주변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아세안은 FOIPS 하의 일본 주도의 지역 질서 구축 노력의 핵심 지역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 간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개별 아세안 국가들이 여전히 약하지만, 연합된 아세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와 다섯 번째로 큰 경제 규모, 높은 경제 성장률과 많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요인을 결합하면 지역 세력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아세안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활이 걸린 SLOCs의 거점이다.⁴¹⁾

이것은 아세안이 인도-태평양의 미래 포괄적이고 다극 질서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세안의 통합 과정을 포함해서 아세안의 통일을 일관적으로 지원한 이유의 일부이다. 일본은 아세안 방위산업협력(ASEAN Defence Industry Collaboration),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HA/DR)에 대한 아세안 군사 준비그룹(ASEAN Militaries Ready Group on HA/DR) 그리고 군 의료를 위한 아세안 센터(ASEAN Center for Military Medicine) 설립과 같은 지역 안보 문제 보다 통일되고 통합된 접근을 하고 있는 아세안을 환영하고 지원하고 있다.⁴²⁾

또한 아세안은 지역의 회복력, 개발과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해 일본 대외 정책이 집중되는 중심 지역이다. 일본 방위성(MOD: Ministry of Defense)이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15개국 중 9개국이 아세안 회원국이다. 더 나아가 일본은 2018년 2월과 3월에 도쿄에서 개최된 아세안 전체 회원국을 위

41) Tham, Jansen, "What's in Indonesia's Indo-Pacific Cooperation Concept?" *The Diplomat*, 16 May 2018.

42) Parameswaran, Prashanth, *ASEAN's Role in a U.S. Indo-Pacific Strategy*. Washington, DC: Wilson Center, 2018, p. 2.

한 HA/DR 세미나에서 입증되었듯이 개별 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역량 구축을 촉진했다.⁴³⁾ MPAC가 시사하는 것처럼 아세안은 일본의 연결성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 지역이다. 아세안 역시 일본이 수년 동안 지원해 왔던 메콩인도 경제 회랑을 통해 인도와 연결성 증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⁴⁴⁾

마지막으로 아세안은 규칙 제정 및 규범 설정 측면에서 일본의 FOIPS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이다. 2016년 11월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2차 아세안·일본 국방 장관 비공식 회의에서 아세안과 일본의 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 원칙인 ‘비엔티안 비전(Vientiane Vision)’을 발표했다.⁴⁵⁾ 비엔티안 비전은 ‘일본은 특히 해양 및 항공 분야에서 국제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했다.⁴⁶⁾ 이 구상에 따라서 일본 방위성은 이미 해양과 항공 분야에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지역 규칙 제정과 규범 확립을 용이하게 하는 수많은 세미나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⁴⁷⁾ 일본과 아세안은 또한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규칙 기반 질서,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 상호보완성, 자유 무역, 아세안 통합과 중심성, 연결성, 포괄성을 위한 지지로써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아세안은 인도, 호주 그리고 중국과 같이 다른 인도-태평양 행위자들과 함께 RCEP의 성공에 필수적인 행위자이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FOIPS 하에서의 지역 규칙 제정과 또는 규범 설정의 관점에서 아세안과 일본의 협력은 가까운 시기에 더욱

43)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http://www.mod.go.jp/e/d_act/exc/cap_b/ MOD(검색일: 2019.6.10.).

44)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HA/DR.’ http://www.mod.go.jp/e/d_act/exc/cap_b/asean/20180226.html(검색일: 2019.6.10.).

45)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2010. The Comprehensive Asia Development Plan. October. <http://www.eria.org/publications/the-comprehensive-asia-development-plan/>(검색일: 2019.6.13.).

46)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6. ‘Vientiane Vision: Japan’s Defense Cooperation Initiative with ASEAN’ 16 November. http://www.mod.go.jp/e/d_act/exc/vientianevision/(검색일: 2019.6.13.).

47)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7. ‘Achievements of Japan-ASEAN Defense Cooperation Based on the ‘Vientiane Vision’ October 2017. http://www.mod.go.jp/e/d_act/exc/vientianevision/pdf/achievements_201710_e.pdf(검색일: 2019.6.13.).

중요해질 것이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아세안을 둘러싼 미일과 중국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전개되었다. 아세안과 미국의 정상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의사로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실현하고, 이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번영, 안보, 원칙의 공유에 초점을 맞춘다고 언급했다. 펜스 연설은 아세안에 관해서 미국은 통제가 아니고 협력을 요구하면서 아세안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실현에 있어서 중심적인 존재이며, 가장 필수적인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펜스는 이 연설에서 ‘인도-태평양은 제국주의와 침략의 장소가 아니고 인도-태평양 비전은 어떠한 국가도 배제하지 않지만, 어떤 나라도 이웃을 존중하고 타국의 주권과 국제 질서에 관한 규범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을 은근히 비판했다. 또한 미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을 천명하면서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 진출에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⁴⁸⁾

2019년 6월 23일 아세안은 태국 수도 방콕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 회의를 열고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채택했다. 아세안 의장 성명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세안이 중심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완수한다’라고 명기했다. 이것은 아세안이 역내에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아세안은 일련의 회의에서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를 주장한 ‘방콕 선언’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일이 추진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거대 경제권이 일대일로구상 사이에 아세안의 균형과 편승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⁴⁹⁾

2019년의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은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존재감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 아세안이 지리적·전략

48) The White House,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at the 6th U.S.-ASEAN Summit,” November 14, 201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vice-president-pence-6th-u-s-asean-summit/>(검색일: 2019.6.25.).

49) “独自のインド太平洋構想など採択 ASEAN 首脳会議が閉幕。”『毎日新聞』2019年 6月 23日.

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구상으로 미중 양 세력과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아세안 의장 성명이나 합의 문서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견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긴밀하게 통합되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규정했다.

이 의장 성명은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역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 촉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장국 태국 빠랏웃 찬오차(Prayuth Chanocha)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세안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세안 정상들의 합의 문서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지역이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이 문서는 남중국해 여러 지역에서 중국이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고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내에서의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⁵⁰⁾

V. 결론

일본의 FOIPS에는 확실하게 지리, 지정학, 지경학 그리고 지리전략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원적이고 포괄적이며 규칙 기반의 지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 질서 구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인도와 호주와 같은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 역외 국가들과도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아세안은 지리적 위치 뿐만 아니라 경제와 인구 잠재력 때문에 지역 질서 구축 전략 지역으로서 일본의 FOIPS의 핵심 지역이 되었다. 이것이 일본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고 아세안의 통합과 중심성을 계속 지원하고

50) ibid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동시에 일본의 FOIPS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본과 아세안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는 재원의 한계 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급속하게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환경 변화 속에서 FOIPS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전략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계속 확대된다면 일본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은 두 초 강대국 사이에서 한 쪽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투명성이 특징인 인도-태평양 질서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불투명한 신냉전 질서로 대체될 수 있다. 일본과 아세안을 포함한 지역의 중견 국가들이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많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석수, “아베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전개과정.” 『세계지역연구논총』 2019년 제37집 2권.
 정구연, “미중 세력전위와 미국 해양 전략의 변화: 회색지대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4권 3호, 2018.
- Abe, Shinzo,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27 December, 2018.
- Akihiko, Tanaka, “The scope of free and Indo-Pacific strategy.” *Diplomacy* 47, January/February, 2018.
- Alison, Graham,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7.
- Chanlett-Avery, Emma, “Japan, the Indo-Pacific, and the ‘Quad’.”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14, 2018.
- Charissa. Yong, “Singapore Will Not Join Indo-Pacific Bloc for Now: Vivian.” *The Straits Times*, 15 May, 2018.
- Corey Wallace, “Leaving (North-east) Asia?” *Japan’s Southern Strategy, International Affairs*, Vol. 94, No. 4, 2018.
- Grace, Abigail, “Beyond Def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e Diplomat*, 6 September, 2018.
- Hoffman, Frank G, *The Contemporary Spectrum of Conflict: Protracted, Gray zone, Ambiguous and Hybrid Modes of War*.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2015.
- Jiechi, Yang, “Working Together to Build a World of Lasting Peace and Universal Security and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Mankind.” address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Seventh World Peace Forum(Tsinghua University), 14 July, 2018.
- Kamiya, Mataka, *Japan’s Asia strategy and Indo-Pacific: Japan’s diplomacy at an era of Indo-Pacific: responses to swing states*. Tokyo: JIIA, 2015.
- Kamiya, Mataka “Japan and “Indo-Pacific: Expectation and problems in Jap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JIIA).” *Security order in Asia*, JIIA, 2013.
- Kobara, Junnosuke, “Japan and China See Abe’s 3 Principles, Slightly Differently.” *Nikkei Asian Review*, 30 October, 2018.
- Kratochwil, F, “Constructing a new orthodoxy? Wendt’s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constructivist challenge,”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9, No. 1, 2000.

- Maslow, Sebastian, "Japan's 'Pivot to Asia': Tokyo Discovers the Indo-Pacific." *APPS Policy Forum*, 1 August, 2018; David, A Brewster,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What It Means for Australia." *The Interpreter*, 7 March, 2018.
- Michishita, Narushige, "Cooperate and Compete: Abe's New Approach to China." *The Straits Times*, 13 November, 2018.
- Parameswaran, Prashanth, *ASEAN's Role in a U.S. Indo-Pacific Strategy*. Washington, DC: Wilson Center, 2018.
- Roberts Brad, *The Case for US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6.
- Rory Medcalf, "China and the Indo-Pacific: Multipolarity, Solidarity and Strategic Patience." *paper delivered for Grands enjeux strategiques contemporains*, Chaire en Sorbonne Universite Paris 1 Pantheon-Sorbonne, 12 March, 2018.
- Satake, Tomohiko, "Chapter 8. Japan: Expanding Strategic Horizon." *East Asian Strategic Review*,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2017.
- Satake, Tomohiko, "How to Normalise Sino-Japanese Defence Relations." *East Asia Forum*, 24 August, 2015.
- _____, "The US-Japan Alliance Amid Uncertainty." *East Asian Strategic Review*.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2018.
- Sen Ashish, Kuma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e Atlantic Council*, 31 July 2018.
- Suzuki, Yoshikatsu, *Japan's strategic diplomacy*. Tokyo: Chikuma Syobo, 2017.
- Swaine, D. Michael, "Creating an Unstable Asia: The U.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Carnegie Endowment for Peace*, 2 March 2018.
- Tammen, Ronald 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CQ Press, 2000.
- Tham, Jansen, "What's in Indonesia's Indo-Pacific Cooperation Concept?" *The Diplomat*, 16 May 2018.
- Wendt, A,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 1995.
- "Expanding the U.S.-Japan alliance to Indo-Pacific." *Sankei Shinbun*, 12 November, 2017.
- "Japan Shifts its Focus on Indo-Pacific." *Nikkei Asian Review*, 15 August 2018.
- "MOD's capacity-building assistance in Timor-Leste." http://www.mod.go.jp/e/d_act/exc/cap_b/timor_este/index.htm(검색일: 2019.6.1.).
-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Agency,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Cooperation." http://www.mod.go.jp/atla/en/policy/defense_equipment.html(검색일: 2019.6.2.).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2010. The Comprehensive Asia Development Plan. October. <http://www.eria.org/publications/the-comprehensive-asia-development-plan/>(검색일: 2019.6.13).
-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http://www.mod.go.jp/e/d_act/exc/cap_b/MOD(검색일: 2019.6.10).
- _____,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http://www.mod.go.jp/e/d_act/exc/cap_b/MOD(검색일: 2019.5.30).
- _____, 'HA/DR.' http://www.mod.go.jp/e/d_act/exc/cap_b/asean/2018_0226.html(검색일: 2019.6.10).
- _____, 'Vientiane Vision: Japan's Defense Cooperation Initiative with ASEAN 16 November, 2016. http://www.mod.go.jp/e/d_act/exc/vientianevision/(검색일: 2019.6.13).
- _____, 'Achievements of Japan-ASEAN Defense Cooperation Based on the 'Vientiane Vision' October 2017. http://www.mod.go.jp/e/d_act/exc/vientianevision/pdf/achivements_201710_e.pdf(검색일: 2019.6.13).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14th ASEAN-Japan Summit (Overview)." 18 November, 2011. <https://www.mofa.go.jp/announce/jfpu/2011/11/1118-02.html> (검색일: 2019.6.5).
- _____, "Address by Prime Minister Shinzo Abe at the Opening Session of the Sixth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 VI)." 27 August, 2016. https://www.mofa.go.jp/afr/af2/page4e_000496.htm(검색일: 2019. 5.15.).
- _____, "Prime Minister Abe Visits China." 26 October 2018.
- _____, "Priority Polic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FY." April 2017 <https://www.mofa.go.jp/files/000259285.pdf>(검색일: 2019.5.15.).
- _____,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Summit." 14 November, 2018. https://www.mofa.go.jp/ecm/ep/page25e_000267.html(검색일: 2019.6.5).
- _____, "Towar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September, 2018.
- The White House,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at the 6th U.S.-ASEAN Summit," November 14, 201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vice-president-pence-6th-u-s-asean-summit/>(검색일: 2019.6.25).
- _____,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APEC CEO Summit." 10 November, 2017.
- 박성진, "인도-태평양 구상 발원지는 일본, 전개 방향 주시 필요." 『경향신문』 2018년 6월 9일.
- "独自のインド太平洋構想など採択 ASEAN 首脳会議が閉幕." 『毎日新聞』 2019年 6月 23日.

Abstract

Japan's Indo-Pacific Strategy and ASEAN's Role

Seoksoo Kim (Professor, Hankuk University Foreign Studies)

Japan is working with the United States on a free-open India-Pacific plan. China is also waging a power struggle in the region, with the new Silk Road economic bloc, the One Road One Belt initiative. ASEAN is pursuing its own strategy for the sake of its position while seeking an integrated strategy. ASEAN has developed balanced diplo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as a whole, and the two countries' hegemony competition and trade disputes are strengthening their strategies for survival.

As an important element of this strategy for establishing regional order, this article focuses on three aspects that Japan has pursued in the name of FOIPS: the creation of stable and multilateral balance of forces, the promotion of connectivity between regional resilience and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rules and norms.

In addition, after discussing these issues, the article identifies the role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in Japan's FOIPS. Furthermore, the article will conclude, predicting that cooperation with Japan and ASEAN will play a key role in cooperation, prosperity and peaceful stability in the region as a regional order-building strategy to avoid the emergence of a new Cold War in the region.

Key Words: Japan, U.S, China, Indo-Pacific, One Road One Belt

투고일: 2019년 6월 30일, 수정일: 2019년 7월 29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6일